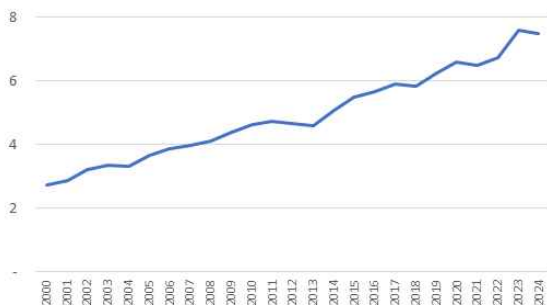


브라질의 정제유 자급화 계획과 배경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는 정유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소비의 약 30%를 수입에 의존하는 디젤을 향후 5년 내에 자급화할 계획임.¹⁾
 - Petrobras는 2025년 11월 발표한 「2026-2030 투자계획」에서 정유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소비의 약 80%를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2026년 4월 계획을 수정하여 소비 전망을 5년 내에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힘.²⁾
 - 자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년 11월 투자계획을 발표해온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하반기 중 세부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원유 순수출국임에도 정유 설비 부족으로 인해, 이란 전쟁에 따른 정제유 가격 상승이 국내 농업 및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정유설비 투자의 시급성이 부각됨.
 - (원유) 브라질은 2025년 기준 세계 9위 산유국으로, 생산한 원유의 약 40%를 수출함.
 - 2006년 대규모 심해유전 발견 이후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산유국 진입을 목표로 신규 유전 탐사 및 생산 확대를 추진함.³⁾

그림 1. 브라질 원유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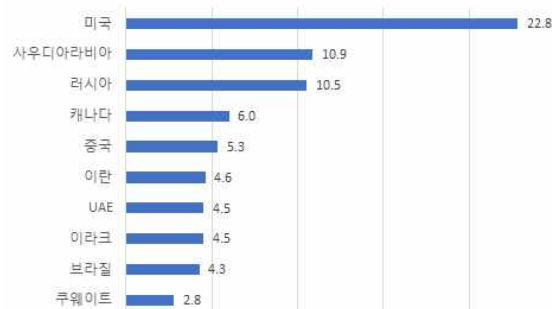
단위: 백만 TJ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검색일: 2026.4.21.)

그림 2. 원유생산 국별 순위(2025년)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Worldometer(검색일: 2026.4.21.)

- (정제유) 반면 정유 설비 부족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디젤의 약 30%와 가솔린의 약 10%를 수입에 의존하였고, 정유 부문 투자는 장기간 정체되었음.⁴⁾

1) Valor(2026.4.3.). "Petrobras studies plan to meet all Brazil diesel demand"

2) Petrobras(2025.11.28.), "Petrobras approves Business Plan 2026-2030"; Aman(2026.4.3.), "Petrobras wants diesel self-sufficiency for nation in fiv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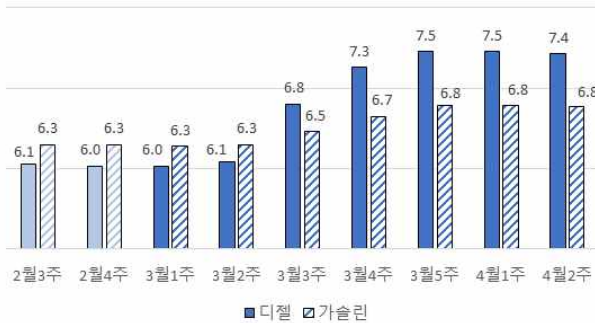
3) Brazil Energy Insight(2026.3), "Brazil's Oil Production Keeps Growing"

4) ANP(2025), "Oil, Natural Gas and Biofuels Statistical Yearbook 2025."; BMI(2026), "Brazil, Oil&Gas Report",

- Petrobras는 정유 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원유 탐사·생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정유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 특히 2014년 Petrobras와 정치권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계획된 투자가 대부분 중단 및 지연되었고,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로 투자 지연이 장기화됨.
- (미-이란 전쟁) 전쟁 이후 수입 정제유 가격 상승으로 2월 말~4월 중순 사이 가솔린 가격은 약 13.3%, 디젤 가격은 약 17.5% 상승함.
-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브라질은 농업의 기계화율이 높는데 농기계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내륙 운송을 대부분 디젤 화물차에 의존하기에, 디젤 가격 상승은 농업비와 물류비 증가로 직결됨.

그림 3. 브라질 정제유 가격 추이(2026년)

단위: BRL/리터



자료: GlobalPetroPrices.com(검색일: 2026.4.21.)

그림 4. 브라질 정제유 생산 및 소비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BMI(2026), "Brazil, Oil&Gas Report", p.5.

- 브라질의 정유 자급화 전략은 에너지 안보 성격이 강하며, 과거와 달리 유가 상승으로 정유설비 투자의 경제성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 또한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⁵⁾, 이는 Petrobras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설비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현 룰라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유 자급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관됨.
- 향후 우파 정부로 정권 교체가 발생하더라도, 정유 자급화는 농업 및 물류 산업 안정과 직결되는 과제이기에, 우파정부에서도 정유 부문 투자 확대계획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박미숙 선임연구원

pp.44~45.

5) International Finance(2026.4.21.), "Middle East conflict: Rystad sees massive repair costs for damaged energy facilities"; MarketWatch(2026.4.20.), "SocGen benchmarked the Iran war to every crisis since 1956. Here's when oil prices return to normal."